

우리나라의 자세대 원예산업 거점단지의 조성

-첨단 유리온실, 경매장, 온실작물연구소의 거점별 현장화를 중심으로-

정 순 주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원예학과

1. 거점단지 조성의 필요성

21세기 한국 원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가오는 2004 이전에 명실상부한 국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원예산업을 매력있는 산업으로 정착시키고 가능한 국내생산 유지, 확대를 원예생산물 공급력을 확보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양질의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원예작물 수입대체는 물론 세계시장의 공략이 가능한 선상에 위치시켜야 한다.

그러한 대책수립 및 추진의 일환으로 이제 우리에게 첫째 10년이 채 못되는 기간이 남아있음을 크게 인식해야 한다. 그 기간내에 우리의 경쟁입지를 강화해야 하며, 강화를 위한 단계별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로 지역성은 국제성이다. 발전된 선진국의 예처럼 지역성을 바탕으로한 국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거점단지형성과 원예산업발전은 세계역사를 보아도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는 반드시 자연과 과학기술의 훌륭한 조화를 바탕으로 해야한다.

셋째로 단위거점별로 독립된 기본단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기본단위는 첨단생산시설 (예, 유리온실단지), 온실작물연구소 및 국제수준의 첨단경매장을 말한다. 이들 3형제가 거점단위별로 조성되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내수 및 수출 입지를 고려한 지역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넷째로 주력품목의 단지별 구분육성이다. 거점마다 동일한 작목이나 품종을 다룰 수는 없다. 원예가 갖는 가장 중요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내수와 수출에 중요도가 높은 상위품목을 단위로 구분 (예, 신선채소류, 절화류, 분화류)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로 원예산업이 갖는 최종적인 발전목표는 국제경쟁력이다. 내년에 당장 세계의 모든 농산물 전체가 다 수입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수년내에 우리가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단계별, 발전적 모델을 도입 및 응용해야 한다. 그러한 예로 초기단계에서는 보완적 차원에서 이스라엘형 농법, 내수 및 수출을 전제로한 일본형 그리고, 최종단계에서는 네델란드형 발전모델을 응용하므로써 한국원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추진되면 우리가 안고 있는 개방화와 통일이란 큰 과제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이다.

한편, 이러한 5×3 전략을 추진하는 데는 반드시 다가오는 시대에 중요한 이슈인 환경, 표준화 및 정보통신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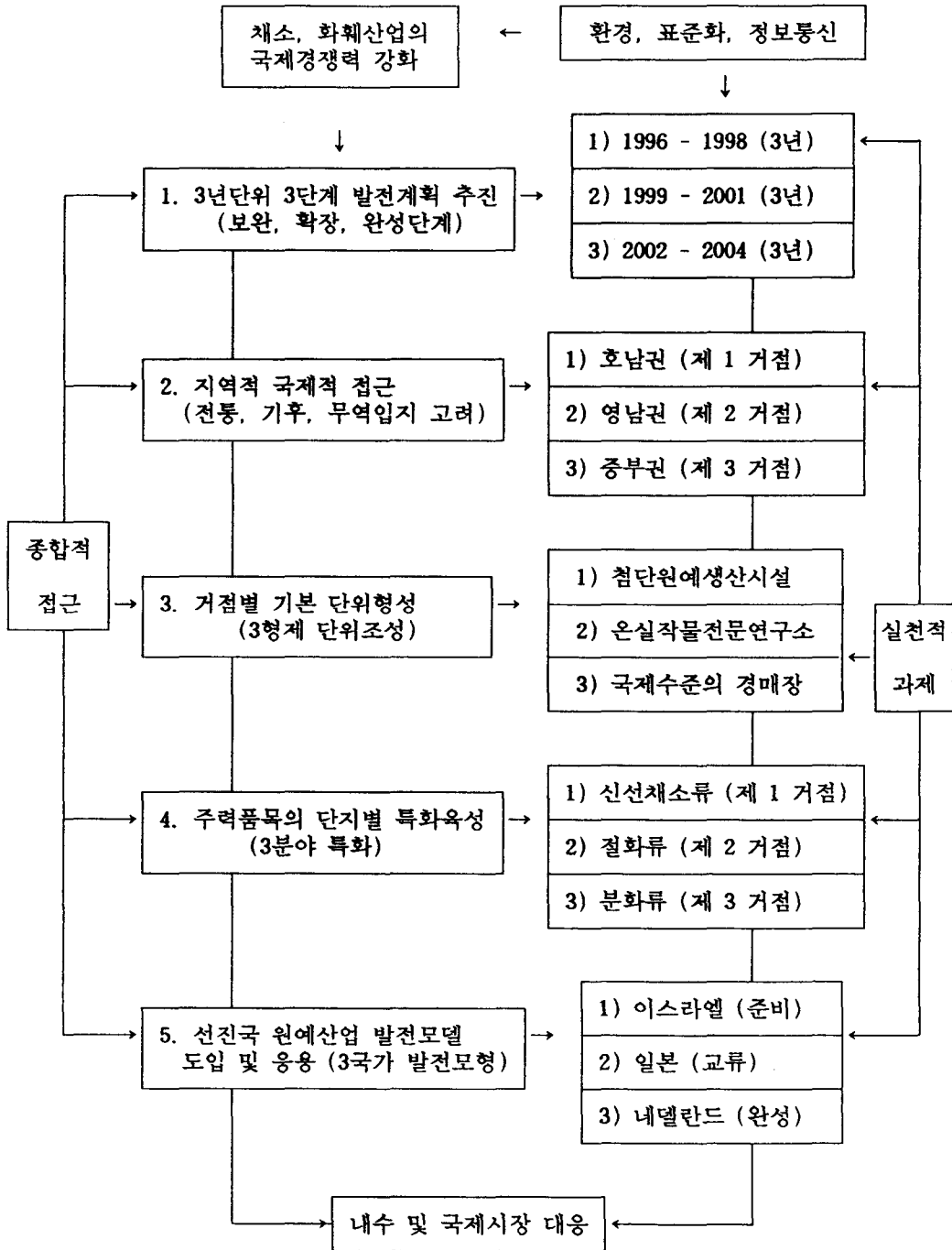


그림 1. 채소, 화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5×3 전략 체계도

2. 발전계획 추진(3년단위 3단계)

모든 일은 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원예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는데에는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표 1. 원예산업발전 3년단위 3단계 발전계획

단 계	연 도	기간	내 용	비 고
1	1996 ~ 1998	3	시범단지 조성	준비
2	1999 ~ 2001	3	거점단지 확대	교류
3	2002 ~ 2004	3	거점단지 완성	수출전용

1) 제 1단계 : 시범단지 조성사업 (1996 ~ 1998)

이 단계는 제 1단계로서 총체적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원예산업의 총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화 국제화가 가능한 틀을 안치시킬 수 있는 거점지역(3개소)에 시범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들 시범거점지역에는 반드시 전문성과 기업가적 정신이 들어있어야 하고 장차 수출전용 거점을 완성시킨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계획을 착수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주도 면밀한 종합적 검토가 따라야 하며, 이 사업의 실행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한 실현이 가능토록 계획에 따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제 2단계 : 거점단지 확대사업 (1999 ~ 2001)

제 1단계에서 시범적으로 설치운용한 단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제 1단계보다 거시적으로 발전된 단지를 조성해서 계획생산, 계획출하가 가능토록 해야하며 특히 주년출하가 가능해야 한다. 거점단지 확대를 통한 원예연관산업의 발전도 도모해야 하며, 거점단지 완성의 전단계를 모두 이루어내야 한다. 거점단지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해야 하고, 이러한 성장의 결과는 지역활성화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 단계가 완성이 되면 원예작물의 내수는 물론 상당한 수출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상응한 부대효과도 커지게 될 것이다.

3) 제 3단계 : 수출거점단지 완성사업 (2002 ~ 2004)

제 1, 2단계의 발전계획 추진을 바탕으로 제 3단계는 이제 한국의 원예산업이 국제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는 단계로 까다로운 국제시장에 뒤편이 경쟁하고 소비자들의 욕구에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고 우리가 생산한 원예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토대를 완성시키는 단계이다. 물론 이에 따른 투자나 또한 단지 완성에 필요한 기술적, 경영적 지식

이나 기법의 보완, 수정, 적용도 병행하여 명실상부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한국의 원예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돌입하게 되는 시기를 맞아야 할 것이다.

3. 지역적 국제적 접근

우리농업이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제화, 지방화되고 소비자 선호에 충실히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농업정책도 그에 상응하여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예산업이 발달한 지역을 손꼽아 보면 호남과 영남의 남부지역과 서울을 대상으로한 중부권으로 대표가 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원예산업은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이들 지역을 상대로한 확실한 비전과 그리고 장단기적 계획이 없어서 국내적으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개방을 앞둔 지금의 사정은 불안과 초조에 쌓여있는 실정이다. 원예산업이 발달된 어느 나라이건 간에 예외없이 갖는 강점은 첫째, 오랜 전통에 바탕을 두고 둘째, 생산에 적절한 기후조건을 가지며 셋째, 원예무역을 위한 전략적 위치를 손꼽고 있다. 우리나라 원예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현시점을 진화적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가까운 장래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원예산업을 성숙한 단계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거점단지를 조성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특성과 배경을 무시한 적당한 방식의 안배 정책이 다시 재연된다면 우리가 기대할 희망이 없게 될 것이다.

표 2. 지역적 거점단지 조성

순 위	거점단지	면적(ha)	비고
1	호남권	3000	첨단유리온실
2	영남권	3000	첨단유리온실
3	중부권	3000	첨단유리온실

이러한 거점단지는 반드시 자연과 기술의 결합조건이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그결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시장의 진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1) 호남권 (제 1 거점단지)

전남·북을 포함한 호남권은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농업입지가 가장 좋은 장소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UR협상 타결이후 가장 큰 피해지역이기도 하다. 농업은 그 중요성을 사회,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업으로서의 경쟁력도 충분하다는 것은 선진제국에서 증명을 했고, 또한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보아도 충분히 전망이 있는 산업이다. 한편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육상, 해상 및 항공으로의 수송여건을 보아도 호남지역의 중심에 거점단지를 조성함은 전통과 생산기후 그리고 무역입지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일찍부터 호남지역은 과채류를 중심으로한 신선채소류의 재배가 널리 보급되었고 현재도 재배면적,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재배기술 수준도 가장 높다. 그러나 첨단생산기법을 구사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시설, 연구개발 및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심각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어도 1개 거점단지는 첨단생산시설이 3천 ~ 5천 정보의 규모를 가져야 하며 내수충족은 물론 국제시장을 겨냥한 거점이 되어야 한다. 생산비를 낮추면서 고품질 원예산물의 생산이 유통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사업추진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진통이 따를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원예작물에 대한 내수도 충족시켜야 하며 밀려오는 외국산 농산물에 도전을 해야 하고 우리가 생산한 채소나 화훼를 세계 각국 어디든지 내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2) 영남권 (제 2 거점단지)

경남·북지역을 포함한 영남권은 호남지역과 원예작물 생산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그래도 일찍부터 김해, 마산 지역 등이 우리나라 절화재배의 주산지를 이루고 있다. 한편 내륙으로는 부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88고속도로 등과 연결이 잘되어 있으며 해상수송을 위한 부산항 그리고 항공수송에는 김해공항이 인접해 있어 내륙 및 수출 등에도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거점단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도, 기후적으로도 적합한데다 인접소비지를 갖추고 있고 또한 장래적으로는 최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인접한 일본에 거대한 시장이 있음은 이 지역을 화훼생산의 최대거점지로 육성 발전시킬 만하다. 부분적으로는 과채류, 화훼류, 분화류가 혼재된 원예산업의 발전유형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은 점차 거점별로 특화 또는 전문화시켜 나가도록 유도 발전시켜야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영남지역은 고품질 절화류를 생산, 공급, 수출하는 거점단지로 육성시켜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중부권 (제 3 거점단지)

중부권은 서울이라는 대소비지를 끼고 있는 지대로서 경기, 충남 등을 포함한 제 3 거점단지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역은 비교적 저온에 견디고 수송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열대 및 아열대의 관상, 화목류인 분화류를 대상으로 한 분화류의 거점단지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미 이러한 점에서 시설이나 기술수준이 낙후되었지만 자연스럽게 단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고품질 분화류의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종합적 시각에서 새로운 형태의 거점단지로 점차 흡수하여 국제시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은 중부권에서 오히려 다른 거점 도시로의 판매나 인접국가의 소비시장으로의 수출, 또는 수입후 제 3국으로의 수출 등 다양한 취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이제 과학도 단지, 의료도 단지를 이루어 가고 있다. 생산, 연구 및 유통의 단지화, 효율화는 성장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4. 거점별 기본단위 형성

「이익이 남는 농업」을 하는 데는 생산물의 품질, 생산비용, 개인의 생산성 그리고 유통과의 관련성이 크다. 또한 결정적인 원예 기업경영의 함수는 자금조달, 생산 및 유통과 관련성이라 할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원예산업은 내수생산과 관련된 문제들에 중점을 둔 결과 원

예작물의 생산효율 및 가격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현재와 가까운 장래로 보아 원예산업 분야에 있어서 기업적 이윤의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불안한 요소를 너무 많이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이윤실현에 관련된 품질경쟁력, 생산비용, 개인의 생산성 및 유통 등 전반적 측면에서의 취약성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들어 논의가 활발해진 빗물의 수질, 살충제, 살균제 등의 농약과 제초제, 식물생장조정제 등의 사용에 따른 작물체와 토양오염 그리고, 산업발전에 따른 대기오염 등에 대한 세계적인 환경규제 압력의 증가 등에 따라 앞으로 유통분야에서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예견이 가능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현실이겠는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무방비상태의 충격과 세계무역기구 (WTO) 가동에 따른 마찰을 흡수하고 줄여갈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경쟁에 이길 능력을 배양하고, 경쟁에 이기도록 자원을 재배치하는 새로운 각오 (new mind set)를 갖고 경기종류에 따라 운동선수들이 한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팀이 총력을 경주하는 방식 (total team approach)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거점별로 첨단생산시설, 온실작물연구소 및 국제수준의 경매장이라는 3형제가 기본단위를 이루어 가장 효율적이고 앞서가는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표 3. 거점별 기본단위 형성

순 위	기 본 단 위	비 고
1	첨단원예생산시설	첨단유리온실
2	온실작물연구소	거점별, 주력작목별
3	국제수준의 경매장	거점별 특화(채소, 화훼 혹은 혼합형)

1) 첨단원예생산시설 (첨단유리온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설원예는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도 이제까지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잡아온 것이 사실이다. 80년대 중반이후 채소류 재배면적은 약간씩 줄고 있으나, 시설채소, 화훼재배면적은 상업농시대에 알맞은 기술집약적 생산의 대표적 형태로서 80년에 1만 7천 9백 정보에서 94년말 현재 3만 8천 정보를 넘는 면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채소의 경우 년평균 15.9%씩 증가하고 있어서 시설채소는 국민 식생활속에 착실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시설채소, 화훼의 소비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품종개량, 시설구조, 환경조절장비, 시설자재, 재배기술 및 유통 등 전반적 측면에서 기술적 저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처한 역사적 상황과 그동안 추진해온 농업정책에 강력히 결부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GATT 국제수지조항을 졸업하는 97년에는 대부분의 시설채소들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사실에 국내 시설채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하며 시설채소 발전의 축을 어떻게 세우고 어느 기간동안에 어느 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단기, 중기 및 장기적 투자계획과 발전모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다수의 농민

들이 지금까지 일관성없는 농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원예산업 발전에 대한 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하튼 시설농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정립해서 그 목표와 방향대로 착실한 추진이 따라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에 대두되고,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첨단원예 생산시설이다.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플라스틱하우스이며 상업농시대의 총아로 불리워진 유리온실은 94년말 현재 67정보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온실산업의 장래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현단계의 플라스틱온실을 현대화 및 기계화, 자동화로 보완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미래에 주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고품질 다수, 저비용 및 환경대응, 표준화 및 정보통신을 고려할 때는 첨단유리온실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다.

유리온실을 설치하는 기본 목표는 고품질 다수, 생산의 계획성, 주년재배 그리고 환경대응이란 차원에서 첨단원예 생산시설로의 일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역거점별로 대형 단지화 해나가야 농산물 시장개방 대응논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은 가까운 장래에 확인이 될 것이다.

2) 온실작물연구소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농업 연구분야에 강도 높은 비판중의 하나가 실질적 혹은 실용적 연구의 결여, 현장애로기술 연구의 부족 그리고 실제적인 연구를 위한 행정지원 미비 등이다. 한국의 원예산업발전에 대한 실질적 동력을 부여하는 연구와 개발분야에 대한 재점점이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원예산업의 성공여부는 50%가 기술이고 50%가 경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시설원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거점단지내에 주력작물의 전문연구소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참신하고 교육받은 원예관련 학자나 연구자를 규합하고 그들과 원예산업 및 유통기구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는 것이 원예작물의 내수충족 및 수출지향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선진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자, 우리나라 원예산업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소극적 대응을 해온 것이 장래를 위한 결정적 잘못이기도 하다.

작물에 대한 연구, 사람들과의 교류, 병해방제, 유통 등에 대한 정보 등을 활발히 교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연구절차에 있어서도 재배자나 유통담당자 및 지도분야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과제들을 연구자에게 설명하고 설명된 과제들에 대한 지역 및 국가연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연구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는 제안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고 자료들은 성실히 제공되도록해 궁극적으로 수익증대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러한 온실작물연구소의 운영은 단지내에 참여하는 재배자와 정부가 절반씩 투자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야말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참신성 그리고 자율성, 창의성 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소는 국가기관의 연구소를 재편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자생연구소를 정부가 법인화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 후자의 경우 이미 실현단계에 들어간 지역이 전남의 호남온실작물연구소이고, 경남의 대한시설원예연구조합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소를 뒷받침해야 한다. 무엇인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은 여기에 희망을 걸

고 있기 때문이다.

3) 국제수준의 경매장

네델란드의 농축산물이 지역적 특화를 보여주고 있음은 세계적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알스미어 화훼경매장이 단지내에 건설된 것은 알스미어를 중심으로 화훼단지가 형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미 수출농업의 견인차로 인정된 알스미어는 정부, 연구자, 재배자, 기업가 그리고 관련 단체의 의지와 자연에너지 이용효율 증대라는 자원이용측면, 꽃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양심적 처리에 바탕을 둔 신뢰, 고도첨단기술을 구사한 품종육성, 재배기술 등의 과학화 그리고, 고도의 경영기법, 근면 성실한 국민들의 협동정신, 꽃소비 확대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한 소비선전 등이 낳은 결과품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보다 화훼산업이 발전된 일본은 아직 화란에 유사한 경매장의 흉내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왜냐하면 수출농업에 대한 도전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기타 구라파 제국들도 이러한 방식이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델이기에 더욱 그렇다.

「한 우물을 깊게 파면 사방의 물이 모여든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제는 거점단지를 육성시켜 국제수준의 경매장을 만들어 가면 국내에서 생산된 채소, 화훼는 물론 일본이나 중국 등 인접국가의 물량까지도 원활히 취급가능한 장소가 될 것이며 특히 이러한 시설을 생산현장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예로 우리나라는 호남권, 영남권 그리고 중부권에 특징있는 주력품목들을 취급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경매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서울 양재동에 설치된 경매장도 초기에는 상당한 애로를 보였으나 점차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매장은 첨단생산시설에서 나온 생산물의 품질, 물량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 경매장은 재배농가 등이 회원이 되는 자생적 판매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경매장은 단지 채소나 화훼를 사고 파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회원 농민들이 재배에서 서로 공감하는 기술적인 내용, 판로상의 애로 등에 대해 연구하는 소그룹으로 유도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될 것이다.

5. 주력품목의 단지별 특화육성(3분야)

원예산업을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재배한 작물과 관련된 시장지역이 어디이고, 생산물은 누구에게 팔 것이며 소비자들의 요구가 무엇이고, 이용가능한 유통체계가 어떤 것이며 수송수단과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경쟁자가 누구인가, 또한 포장과 광고비는 얼마인가, 변동하는 시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이다.

특히 생산지역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는 온도, 이용가능한 태양방사, 강우, 습도, 풍속, 풍향 등 기후 조건은 어떤가, 연료나 전력의 이용가능성, 수자원 이용성, 토양의 이용성, 확장가능한 경지 여부, 자본조달 여건 및 경영능력 등이다. 이들 고려사항은 작물재배 거점단지 형성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생리 생태적 특성이 다른 원예작물의 재배지대를 구분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표 4. 주력 품목의 단지별 특화육성

순서	주력분야	거점별	주력 품목	비고
1	신선채소류	1(호남권)	오이, 토마토, 멜론, 피망, 가지, 딸기, 상추, 시금치, 호박, 과	내수 및 수출용
2	절화류	2(영남권)	장미, 카네이션, 국화, 안개초, 난, 알스트로 메리아, 백합, 글라디올리스, 프리지아	"
3	분화류	3(중부권)	고무나무, 관음죽, 야자나무, 국화, 선인장류, 소철, 동양란, 서양란, 행운목, 군자란	"

거점지역별로 내수 및 수출을 고려한 상위 10품목(TOP 10)을 중심으로한 국제경쟁가능 선상까지 품종개량은 물론 첨단생산시설 및 주력품목 전문연구소 및 이들의 경매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주력 품목의 한계는 내수 및 수출여건을 감안하여 가감할 수 있는, 또한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에 따른 계획들이 착오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1) 신선채소류(제 1거점)

제 1 거점지역은 전남북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그 중심거점은 나주가 중심이 된다. 지역 농업으로서 이 지역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원예산업이고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원예산업은 타 분야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먼 장래에도 원예산업에 대한 성장가능성이 보장되는 지역임에 틀림없다. 또한 원예산업은 앞으로 간접부문 즉 양묘산업, 기계공장, 특수건축회사, 경영진단사, 무역회사, 가공회사 등의 관련분야 산업 발전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며 고용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발전될 것이다. 네델란드의 동남부에 위치한 림버그북의 원예산업은 그 지역 고용의 거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 지역은 네델란드의 경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원예산업은 경제, 도시계획, 고용, 사회간접 자본 투자에 관한 지역정책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행스럽게 이 지역에도 UR협상 타결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들이 원예산업의 중요성을 이해 해주려 하고 있다. 또한 제 1거점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예지대이며 다양한 원예작물이 생산되고 있는 지대로 이 지역의 원예는 나주에서 시작되었다. 적절한 기후와 토양구조 그리고 광주라는 도시인접지역에 위치한데다 서울로의 수송원예가 발달되어 일찍부터 대규모의 전문적 원예농업이 발달되게 되었다. 재배자들 또한 특수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신선채소류의 주요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원예가 경제, 사회적 생활양식을 지배해갈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이 지역의 전통적 특성이 되게 하는 일을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한다.

「신선채소류 재배」 거점단지의 제안은 이 지역농민의 정신과 끈질긴 노력, 이상적인 기후환경, 양질의 수자원 및 토양조건 등과 무관하지 않다. 국토 3만리에 마지막 남겨놓은 이 지역이 오이, 토마토, 멜론, 딸기, 피망, 가지, 호박 등의 과채류와 상추, 시금치 등 엽채류의 주요 재배지대로 발전시켜감이 중요하다. 이는 자연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의 가장 이상적 결합이 될 것이다.

2) 절화류(제 2거점)

제 2거점 지역은 경남, 경북을 포함한 영남지역으로서 제 1거점지역인 호남지역과 유사한 장소로서 특색있다면 김해, 마산을 중심으로한 화훼산업이 일찍부터 발달한 지역이다. 그러나 선진국 생산수준에 이르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생산적 측면에서 생산자들의 생산기반이 불안정하고, 재배시설과 기술이 낙후되어 품질향상이 어려운데다 꽃 소비문화의 차이, 꽃 소비의 법적제제 및 판매망 부족 등이며 소비 측면에서도 경조사 화환에 60%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화란과 일본의 가정용 및 사무실용이 각각 30~40%씩 되는 점에 차이가 많고 또한 계절편차가 큰 것이 크게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비가 일반화 되고 계절편차가 없어져 가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꽃의 생산과 유통이 국제수준으로 가능한 방법이 없겠는가. 이는 의지를 갖고 철저한 준비와 실천을 하므로써 가능하게 될것이다. 영남지역에서 기존에 해왔던 국화, 카네이션, 장미, 그리고 안개 등 전통적으로 강한 재배경험 그리고 기 형성된 산지 등을 감안해 생산기반, 시설 및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품질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지역의 주력품목은 소비문화와 가장 결부력이 강한 절화를 중심으로 시범단지, 확대단지, 완성단지의 개념을 도입해서 전개해 나가야한다. 이 지역은 육로, 해상, 항공수송이 가장 용이한 거점지대로 진주, 김해, 마산을 포함한 지역이 된다. 「일본시장을 점유하면 세계시장을 점유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시장이 까다로운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도 일본시장을 무대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원예산업을 가까운 장래에 육성시켜 가야 한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꽃도 막을 수 없고 다른 나라로 내보낼수도 없는 산업으로의 원예를 보면 우리모두는 원예분야에 할 일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우리에게 가까운 복병이 중국이다. 농업에 있어서 중국과의 차이가 무엇이며 일본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현 시점에서 거점단지 조성에 민간기업을 유치시켜, 정부의 정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정된 정부투자 재원만으로는 우리나라 원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3) 분화류(제 3거점)

우리나라에 있어서 화훼류의 교역은 수출이 350만불 수입 1,500만불 수준으로 수출이 수입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수출은 주로 묘목중심(67.7%)이고 그 중 선인장이 대부분이다(2백만불). 수입은 열대관엽류와 번식용 구근류가 주류(77.6%)를 이루고 있다.

표 5. 연도별 화훼류 교역현황

구 분	'87	'88	'89	'90	'91	'92	연평균증가
수 출	1,228	1,417	2,104	2,486	2,764	3,509	24.0%
수 입	4,498	7,210	8,269	10,286	13,613	15,611	29.3%

화훼소비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을 상회한다. 화훼소비 증가율('80~'90)은 연평균 27.1%인

데 비하여 동일한 기간에 1인당 GNP 증가율은 연평균 12.8%이다. 선진국 국민 1인당 화폐소비액은 일본 3만 2천원, 미국 3만 6천원, 프랑스 3만 5천원, 화란 7만 1천원이다. 선진국은 절화중심 소비구조이나 우리나라는 분화류 중심이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 소비지를 중심으로한 중부권 지역이 될 것이다. 전국의 어디에서 어떤 작물이건 재배를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가능한한 경합을 피하면서 자연임지 조건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부권에는 분화류의 교역이 가능한 영종도 신공항, 김포공항, 인천항 그리고 육로와의 연결이 우수하며 중국과의 거리도 대단히 가까운 입지를 갖고 있다. 또한 현재로는 이들 대부분의 분화류들은 서울을 중심으로한 소비 그리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거점 단지화하여 고품질 다수, 생력화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므로써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이 가능한 길에 들어서게 해야한다. 추천된 분화류의 품목은 현재 및 장래를 대비한 시장조사, 수요예측을 통한 10품목을 목표로 점차 발전시켜야 한다.

6. 선진국 원예산업 발전모델 도입 및 응용 <선진농업 3국가 발전방향 모형>

원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중 하나는 앞서가는 국가의 원예산업을 검토하는 일이며 그 검토과정에서 수용 또는 응용가능한 분야를 도입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지구상에는 원예산업 분야에 많은 나라들이 분야별로 경쟁력있게 발전시켜 가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할 때 많은 분야에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네델란드」를 들 수 있다. 실로 오늘날 WTO체제하에서의 농산물교역을 생각할때 고품질, 다수 그리고 저비용 생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원예 산업구조상 외형적인 상황이 유사하다. 그러나, 관수, 시비 등의 내용은 현저히 뒤져 있어서 내부시설의 보완 즉 관비시스템의 채용에 의한 기술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그로부터 생력화, 과학화를 실현시켜야 하고 그 결과는 고품질 다수에 연결시켜야 한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연과학 기술을 유효하게 결합시키는 최선의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발전 모델을 도입 응용하는 것이다. 이는 내수는 물론 일본시장을 겨냥하기 위함이다. 우리들이 판매를 희망하는 장소가 일본이고 그중의 대부분을 일본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재배작물이나 재배방식, 유통과정 등 원예작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에 일본인들에 대한 이해와 납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웃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차별화된 농법을 도입 또는 응용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서 생산된 원예작물의 대부분을 세계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 온실작물연구소 그리고 국제수준의 경매장 등이 완비된 체제를 갖추고 실제적으로 국제시장에 몇몇한 경쟁자로서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1) 이스라엘 (보완, 준비)

이스라엘의 시설원예면적은 2천 정보인데 대부분 대형다연동 자동화 플라스틱하우스로 규모는 0.5~1ha로서 우리나라의 2~3배 정도 농가 규모가 크다. 또한, 합리적 시설, 효과적인 물과 비료의 사용 등이 특징이다. 시설은 내풍성이 초속 38.9m, 풍하중 95kg/m², 수직하중은 30kg/m로 은실시설 못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시설도 구조강관 사용을 통한 견고한 시설도 가능하며 그 속에 냉난방 및 CO₂시비 등을 결합시키고 농약살포, 작업기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유효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시설의 구조적 측면외에도 재배법은 대부분 perlite를 이용한 양액재배를 채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된 양액은 Netafim사의 액비공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물론 양액의 공급이나 환경조절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컴퓨터system의 개발 이용이 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시설, 인공용토의 이용, 관비system 채용, 양액재배 등의 방법을 현재의 시설재배에 채용한다면 보완적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 생각된다. 이스라엘 인구는 겨우 500만명이며 그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만명이 안되는 3.5%이다. 이들이 국민 총생산의 5%와 수출의 5.6%(6억6천만 달러)를 차지한다. 그리고 농산물 수요의 95%를 자체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나쁜 기후나 토양조건에서도 불굴의 투지를 갖고 개발한 수많은 농부들과 사명감을 가진 과학자들,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결합된 결실이라 본다.

2) 일본 (내수 및 수출)

우리나라보다 발빠르게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 왔고, 현재도 2천년대의 농업을 생각하고 새로운 농정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의 변화를 주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의 새로운 농정이란 영농규모의 확대, 농업조건이 불리한 중산간 지역농가에 대한 소득 보장제도, 전작보상(채소, 과수), 경작포기 농가이고 농지소유 비농민을 대상으로 한 휴경농지를 정부가 매입해 농지 수요농가에 제공해 주는 구체적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나 규제를 검토 조정해서 경쟁과 자율을 바탕으로한 생산을 조정하고 있으며 유통에 있어서도 시장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더우기 완벽한 농산물 포장, 농업재해 보상제도, 농조직의 통폐합, 제도와 경영혁신, 공채, 금융, 고령화문제 등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품질고급화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첨단농업기술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농업은 농업여건의 개선에 목표를 두고 과감한 농업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농업의 제도를 혁명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해가고 있는 일본의 농업을 알아야 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접근방식이 우리나라의 원예산업 전개에 중요하며 미래에 일본으로의 수출을 전제로 할 때는 일본의 관행과 제도를 알고 기술적 진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예산업에 있어서는 생산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 양자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상대가 가능하리라 본다.

3) 네델란드 (수출전용)

네델란드를 중심으로한 주변국의 원예산업은 은실산업으로 대표될 수 있다. 유리온실의 경제적 상각년수를 8년으로 보고 그 정도의 연수를 지나게 되면 유리 등 새로운 자재를 사용, 용적을 확대시켜 광선투과율을 향상시키는 편이 더욱 경제적이며 시설내 환경도 좋아져 병해 발생도 적게

되고, 고품질 다수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생산시설을 모두 유리온실로 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가능한 고품질 다수, 생산기간의 단축, 생산의 계획성, 확실성, 주년생산 등이 가능한 첨단생산시설로의 전환이야 말로 경쟁력 강화에 필수 조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건설단가만을 고려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기계화, 자동화를 통한 생력화, 시설의 용적증대 및 자재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등도 시설 건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는 구라파의 온실산업에 대한 노하우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 특유의 시설 및 장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화란은 화훼무역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절화와 분화의 세계수출에서 이 적은 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65%와 48%나 된다. 적은 나라가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이 기울이고 있는 신품종 개발, 상품화 연구의 활발한 추진에 보다 깊은 연구과 대응이 따라야 한다. 한국에 있어서 원예산업의 2004년에는 대일본, 또는 세계시장을 향해 우리가 생산한 원예작물을 떳떳하게 내보낼 수 있는 화란형 농업방식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들은 현재도 장래에 문제가 되는 환경, 표준화 및 정보통신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성에 대해 우리들이 현재 생각지도 않는 고민을 해결해 가고 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최종적인 경쟁력은 고품질, 다수, 환경위생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첨단기술관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 결론 및 제언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원예분야를 연구하고 그리고 원예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관련인들이 원예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는다면 누가할 수 있겠는가? 원예산업에 있어서는 「창조하는 원예」, 「전략적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원예」가 「이윤과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 원예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의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략적 계획이 취급하는 것은 원예산업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다루게 된다. 즉, 원예산업은 어디로 가야하고, 어떻게 그 곳에 도달하는 가이다. 그러나 원예를 에워싼 환경을 보면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되고, 복잡성은 증대되며 또한 변동성(volatility)이 커지게 된다. 법률 및 제도적 변화, 기술적 발전 그리고 산업구조 등과 같은 여러분야에서 변화의 크기가 단순하지 않다. 그것이 변화나 복잡성의 기후이다. 우리나라의 원예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그 계획은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어야 하며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적 과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에 의해 유도된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 확대적용된 신기술이 시장을 혁신시키고 그 결과 다른 분야의 형태도 많은 변모를 가져오게 한다. 기업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복잡성은 불확실성을 창조하게 된다. 또한 세계적 관계, 효율성, 공동목표, 자원배분, 경영개선, 위험제거 등의 면에서 실질적으로 큰 의문을 갖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 질문과 대답에 대한 공포 때문에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 지체하면 그것은 현실과 미래를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문제들을 논의해서 단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문제는 전략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략 계획이 처음에는 우리 원예산업 내부의 몸부림이고 후에는 밖으로의 투쟁이다. 원예산업에 있어서 전략계획이 군사훈련이 아니며 정확한 최종목표를 갖는다. 우리나라 원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구체적 실천과제에 대한 5×3전략 계획의 추진이 요구된다. 종합적 접근은 계획의 완성년도를 2천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그 접근방식과 과제는 다

음과 같다.

- 가. 원예산업을 에워싼 사정으로 보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안」은 대폭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나. 장차 경쟁의 원천은 환경, 표준화 그리고 정보통신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 계획은 절대적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어 진정한 원예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의 건설한 민간기업의 다수 참여를 시도해야 한다.
- 다. 원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 중기 및 장기적인 전략계획을 추진해야 하며 그 계획은 선진국 내지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공략적 계획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구도하에서 원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5×3전략을 제시한다.
- 라.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3 전략체계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전략은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이 필요하며 각각의 전략에는 반드시 실천적 과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 마. 전략적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 내용의 제 1단계는 2004년 이전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적 발전계획의 추진을 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95년부터 3년은 3단계 발전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제 1단계 3년은 보완적 차원에서 그리고 2단계는 확장단계 그리고, 제 3단계는 완성단계로 구분해서 목표로 하는 거점은 국제수준에 이르는 단계로 진입시켜야 한다.
- 바. 원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연과 전통, 기후 그리고 무역입지를 고려한 지역적 국제적 거점조성에 목표를 둔 접근을 해야 하며 그 대상거점은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이 그 대상이 된다. 각 권역에 채소, 화훼, 과수 등 원예작물 생산단지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능률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유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 3대 거점지역에는 거점별 기본단위를 위치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 기본단위는 첨단원예생산시설, 원예작물연구소 그리고 국제수준의 경매장을 포함한 3형제 단위가 된다. 이러한 단위는 원예산업의 특징상 매우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단위임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들 3형제는 생산, 연구개발 그리고 유통을 1단위로 보는 새로운 대응책이 될 수 있다.
- 아. 거점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거점단지들은 채소, 화훼 및 과수가 혼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장래에는 보다 전문화되는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단지별 주력품목을 특화 육성시켜야 한다. 잠정적으로는 원예작물을 공통해서 취급하는 방식을 택하나 장래적으로는 특화시켜야 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전통과 기후 그리고 무역입지를 고려해 제 1거점인 호남지역은 신선채소류, 제 2거점인 영남지역은 절화류, 제 3거점인 중부권은 분화류를 특화시

켜야 한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내수와 수출이 가능한 상위품목(예, Top 10)을 중심으로 전략적 육성을 해야한다.

자. 현재의 원예산업을 미래의 원예산업에 바로 연결시킬 수 없다.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의 원예산업 즉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원예산업의 모델을 도입 및 응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현재의 원예산업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농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관개와 시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농법이 그 1차적 대상이 될 것이고, 2차단계로서는 우리나라와 농법이 유사한 일본농법에 대한 집중적 고려가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의 궁극적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기 때문이며 그 시장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제 3차 단계에서는 우리농산물은 내수는 물론 수출전용으로도 가능한 영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현재까지 화란을 능가할 나라는 없다. 절대적으로 유사한 모델의 창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준비단계, 확장단계 그리고 완성단계의 합리적 모델을 적용시켜 가는 접근방식을 채택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전통과 체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차. 10년이 지나면 이웃, 일본을 포함하여, 미국, 유럽연합이 한국에 있어서 원예산업에 관련한 매력있는 시장으로 등장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입장에서 눈물을 흘릴 것인가를 지금 판단해야할 결정적 시기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 인식을 전제로 부가적으로 강조를 해야할 몇가지 내용을 제시코저 한다.

1) 거점별 기본 단위 형성에 있어서 첨단원예생산시설은 2천 4년 이전에 첨단유리온실 1만정보를 목표로 해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온실작물연구소 및 20내지 30만평 규모의 경매장 등은 국가계획으로는 도저히 엄두를 낼만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동원시켜야 한다. 이러한 3형제 단위의 생산시설, 연구소 및 경매장은 적절한 선에서 농민 및 국가기관에 양도하는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원예산업 발전을 위해 교육 및 연구기관도 변신해야 한다. 그 일례로 제 1거점지역인 호남지역에서는 많은 대학에서 원예분야를 교육시키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농과대학)을 전체적으로 통폐합하여 새로운 장소 즉 제1거점지역에 모집하여 농업종합대학을 설립하는 재편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라도 신선하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야 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농업종합대학은 농수산부 산하에 위치시키는 새로운 편제를 해야한다. 따라서 지역거점별 대학내 유사학과의 통합화, 학생 정원조정, 자율화, 그리고 졸업생의 정예화를 기해야 한다. 농과대학을 이수하는 자는 학비, 병역 등을 면제시키고, 졸업후는 첨단영농이 가능토록 국가적 차원에서 배려를 받도록 해야 한다.

3) 지금까지의 교육, 연구 및 개발의 몫은 국가가 책임을 져왔다. 이제는 재배농민도 이에대한 부담이 불가피하다. 생산자조합 유통 등 원예산업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은 연구개발에 대한

공동 부담을 해야하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 4) 우리나라의 원예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내자원에 대한 신학문, 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이외에도 해외자원의 적극 활용을 위한 투자가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과감히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부터의 원예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자원만을 연구해서는 안되고, 세계 어느곳이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에 대한 세계화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이다.
- 5) 원예산업 발전을 위해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가동 이후 관세, 보조금 등 제분야에 걸친 국제 동향, 국가별 동향에 대한 감시와 국가간, 국제간 협상능력의 증대 등 국제농업 관계에 대한 정통성 있는 담당기구의 역할이 실제 원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진실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6) 마지막으로 원예산업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다양한 측면에서 원예우호적이어야 한다.